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 : 누가복음 10:25-37

요절 : 누가복음 10:37 "**이르되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미와 같은 인간입니다. 둘째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행복을 일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개미형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그 결실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꿀벌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세 종류의 인간상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여행객을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어 놓고 남의 물건을 훔쳐 간 강도는 거미형 인간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피해 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개미형 인간입니다. 반면에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헌신적으로 도와준 사마리아인은 꿀벌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머리 좋은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사는 자신의 율법실력을 자랑하고자 예수님께 나아와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메마른 것인지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살아 역동하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25-28)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25) 그가 질문한 의도는 예수님의 율법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중국의 진시황이 바랐던 것처럼 불로초를 사서 먹어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동기는 좋지 않았지만 기가 막히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드시 그 답을 찾아야만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서 율법교사는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로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26) 예수님은 왜 질문에 대해 즉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반문하셨을까요? 이것은 율법교사가 질문을 한 의도를 간파(看破)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질문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 '**율법**

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는 영생의 길에 관한 해답은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네가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 속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나왔다가 도리어 이제 자신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7) 구약의 신명기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에 생명을 얻는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모두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단 열 개로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교사는 이 십계명을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합친 단 하나의 계명으로 집약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방대한 내용 중에서 핵심을 뽑아 짧게 요약하라는 시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율법 교사는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의식이 훌륭할 뿐더러 대답도 정확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경 선생으로서 충분히 모범(模範)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네 대답이 옳도다.' (28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율법교사의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8b) 율법교사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행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 교사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교사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모르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남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위선을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교사들은 까다로운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 신앙이 좋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았다면 이렇게 말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머릿속으로는 말씀을 잘 알고, 수없이 가르치기도 했지만 정작 삶에서 실천(實踐)은 하나도 없었군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 지켜 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양이니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것인가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날 메시지도 듣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고, 따로 성경 다독을 하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행하느냐 얼마나

실천에 옮기느냐'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라'는 투쟁방향을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샘이 생겨 기쁨과 소망과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 때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이를 행할 내적인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투쟁하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으로서의 자아발견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때 그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절망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 그러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롬7:25,8:1,2).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투쟁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또 상대방의 연약함도 잘 이해하고 품고 섬기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머리로만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투쟁하지 않는 자는 성경지식만 늘어나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자는 심령에 전혀 기쁨과 은혜가 없습니다. 또 이런 자는 늘어난 성경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는 질문이 정말로 의미심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행함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 이름이 '성경읽기선교회'입니다. 이 이름이 명실상부(名實相符)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경행하기선교회', '성경실천선교회'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읽기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29-37)

그런데 실제로 율법교사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는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29)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동족인 유대 민족만을 이웃으로 삼았습니다. 이방인이라든가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식 문서에 이방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쓰기 위해서라고 쓰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은 당연히 동족인 유대인이' 라고 대답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을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미 다 행하고 있는데 뭘 새삼스럽게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작전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작전이 있었습니. 그것은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인 듯 이웃 아닌 이웃 같은 이웃도 있지 않습니까? 이웃의 정의는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율법교사는 이웃 사랑을 실천의 영역이 아니라 논쟁(論爭)의 영역으로 끌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법조인 중에 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법망(法網)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법꾸라지(법을 미꾸라지)'라고 부릅니다. 알고 보니 원조(元祖) 법꾸라지가 바로 '이 율법교사'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한 비유로 '누가 내 자신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을 만났습니다.(30) 이 길은 총 27km에 이르는 좁고 굽은 비탈길이었습니다. 길 주변에 큰 바위와 돌굴들이 많이 있어서 이를 은신처 삼아 활약하는 강도들의 피해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 왔다가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강도들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털렸고 심지어 입고 있던 옷까지 빼앗겼습니다. 강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을 반쯤 죽은 상태가 될 때까지 집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가 외진 길에 중상을 입고 쓰러졌으니,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에게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니까 당연히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사장은 멀리서 쓰러진 그 사람을 보더니 다른 길로 돌아 그를 피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봉사하는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마저도 죽어가는 사람을 잠시 보더니 멀리 돌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갔을까요? 예배 준비가 너무 급하고 바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만지면 율법에 부정해지니 부정해지지 않으려 한 것일까요? 하지만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퇴근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들은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자기가 희생하기 싫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당했다는 것은 근처에 강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괜히 이곳에 머물다가 자기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代價)가 적지 않았습니다.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격자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불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용의자로 오해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을 도우려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기 시간과 삶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해 도와주지 않았다고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왔으니 이제는 평신도 유대인이 등장할 차례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과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던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플 좋다. 썸통이네.’ 하면서 한 대 더 때리고 갈 수도 있었었습니다.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을 일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33,34) 사마리아 사람은 놀랍게도 쓰러진 유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먼저 심폐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다행히도 심장이 다시 뛰고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가방을 뒤져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 상처에 부어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두건을 벗어 찢아서 상처를 싸 매주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했지만 위험 지역에 강도 만난 사람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강도 만난 사람을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산길을 걸어 안전한 주막에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곁을 지키며 정성을 다해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든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떠날 수도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지갑 속에 현금 두 데나리온(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했습니다.(35) 그리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36)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의 끝판 왕입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원수를 위해 누가 이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33b) 그는 쓰러진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고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지체 없이 도와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은 '사랑하라' 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 순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쌍한 사람을 지나쳤고,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도왔습니다. 누가 더 성경에 가까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까? 성경대로 실천한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 마음에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돌보았던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 1910~1997)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다가가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분명히 봤지만,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를 책임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수 애양원에 갈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는데 한 가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한센 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애양원은 1대 원장으로부터 6대 원장까지 모두 미국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포사이드라는 미국 선교사가 목포에서 광주로 오다가 한 한국인 한센 병 여자 환자를 발견하고 돕

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자기 집승에 태우고 와서 양립 동 기슭 움막에서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600명의 한센 병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사람들, 즉 광주시민들은 문둥병자들이 많아지자 데모를 하고, 불평을 하고, 이들을 멀리 보내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선교사들은 이들을 데리고 순천으로 가서 지금의 애양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양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지금도 포사이드 선교사 등 미국선교사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도 그 병자들을 버렸습니다. 같은 지역주민들도, 심지어는 가족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자신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그분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나중에는 불등고 미안하다, 고맙다고 했다 합니다. 집안에 문둥병자인 자기가 있으니 동생들 결혼을 시킬 수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로 부터도 버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미국선교사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치료해주고, 거두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같은 말을 쓴다고, 같은 고향사람이라고,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이웃이 아닙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36)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37a) 그는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답이 더 본질을 잘 드러내는 대답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출신에 상관없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중심'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이웃의 범위를 정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니라 타인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 기준이 되고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웃은 정의될 수 없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랭던 길키(Langdon Gilkey-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 한 명)가 쓴 '산둥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2차 대전 당시 중국에서 일본군이 세웠던 외국인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1943.3-1945.9)을 쓴 책입니다. 당시 이 수용소에는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친절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자가 부족한 수용소 생활이 계속 되자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가족만을 챙기려하고 동료들을 위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들 중에 한 명의 선교사는 전혀 달랐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에릭 리델(Eric Henry Liddell 1902-1945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1924년 파리올림픽 400m 금메달 리스트. 장로교 선교사)이었습니다. 육상 선수를 은퇴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와있던 리델은 수용소 안에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생기면 필요한 동료에게 다 갖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수용소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에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쾌활하고 얼굴이 밝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에릭 리델은 1945년 2월에 뇌종양으로 수용소 내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저자는 그에게서 자기중심성을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산둥 수용소'의 한 대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의미와 안정성의 중심을 자신의 생명에 두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둔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복지가 된다. 이런 신앙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중심성을 포기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p458)"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성경을 읽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실천한다면 이런 기독교는 자기만족을 위한 종교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선교사로 중국에 왔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자기중심성을 끝끝내 극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과 같은 진정한 신앙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서평 선교사도 있고 그 뒤를 따른 마더 베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테레사 수녀, 이태석 신부도 있으며, 지금도 아프리카나 오지(奧地)에서 수고하시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도 있고, 7부에 훌륭한 목자님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기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필요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불쑥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의 자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캠퍼스의 양일 수도 있고, 센터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일 수도 있고, 방황하는 캠퍼스 영혼일 수도 있고, 옆집 지산동 주민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중심의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 이웃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으로 율법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37b)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아낌없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어라. 끝까지 책임지고 희생하라." 이것은 너무 무리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의구심(疑懼心)이 듭니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 나름대로 조금 더 연장해 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 덕분에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과거 자기처럼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두고 지나쳐서 갈 수 있을까요? 차마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자기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했던 것 그대로 이 사람도 또 다른 강도 만난 자에게 해주고 그의 이웃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토론(討論)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우리들은 죄 때문에 사탄에게 얻어맞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5,6절 말씀처럼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더럽다 소망 없다고 피해 지나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 레위를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셨듯이, 사마리아의 목마른 여인과 만나주셨듯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붉은 피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웃,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친히 나의 이웃,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두 테나리온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가로 지불하시어 죄로 죽어 가던 나를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추운 겨울날 지하도를 지나는데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업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집에 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것처럼 불쌍한 자를 왜 도와 주시지 않는 것입니

까? 왜 그들을 외면하십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가서 그 사람을 도우면 안 되겠니?” 주님은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돕고, 사랑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이 청년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섬길 기회, 사랑할 기회,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을 그냥 피하여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무모한 낭비가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인도의 전도자 썬다싱(Sundar Singh, 1889~1926)이 하루는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보니 한 사람이 추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 길을 가던 사람이 흘끗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썬다싱도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다가가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길을 갔습니다. 그 사람을 업고 가다보니 힘들어서 땀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 때문에 등에 업혀 있던 사람이 몸이 녹아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도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추위를 타지 않고 산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참 가다 보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추위 때문에 이미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얼마 전에 자기들 앞서 스쳐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빨리 가려다가 추위에 얼어 죽어 버린 것입니다. 썬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렸지만, 그 땀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신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흘린 피와 땀은 남도 살리지만 결국은 나도 살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감격,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히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벅찬 감격을 품에 품고 주님이 가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이번 여름수양회가 구원의 벅찬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세상 속에 버려져 죽어가는 양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참석하여 양들이 살아나는 수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공홀의 심장으로 자비의 손과 발을 움직여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